01□□□_□□□□□□15□ 13. 8. 13. □□ 4:29 Page 5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5호 2013.06. pp.5~28

이시영 시 연구

—잃어버린 시간의 문학적 복원

A Study on the Poem of Si-Young Lee

구혜숙(단국대 박사과정)

차 례

1. 서 론
2. 역사의식과 서정성의 긴장 그리고 조화
3. 『무늬』에 나타난 시 의식의 특징
1) 시의 원초적 체험
2) 잃어버린 시간의 문학적 복원
4. 결론

1. 서론

이시영을 주목하는 까닭은 그가 역사의식과 서정시를 하나로 융합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시인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이 균형을 잃고 과잉이 될 경우, 시적 표현력과 감성이 상실된 채 정치적 슬로건으로 변모하거나 그 반대로 사회적 발언을 외면하게 된다. 이는 우리의 문학사에서, 1920-30년대 프로문학의 논쟁을 통해 이미 경험했던 바이다. 목적의식과 문학의 가치 사이에서 어떤 좌표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박영희와 김기진의 논쟁에서 그 단초가 형성된다. 이른바 선전문학과, 예술을 앞세우는 문학 사이의 긴장이었다.[1] 이시영은 이런 양극단의 위험성을

1)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학연사, 2005, 123~127쪽.

01□□□_□□□□□□15□ 13. 8. 13. □□ 4:29 Page 6

극복하는 노력을 전개해왔다. 그는 민중시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독특한 서정적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는 여전히 역사의식을 견지하는 가운데 시의 본령이란 무엇인가를 끈질기게 묻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오래전 김현이 "글은 왜 쓰는가 하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회피하게 만들고, 우스꽝스럽게 희화화시켜버리는 악질적인 현상이 순수문학과 참여 문학의 대립이라는 현상이다"[2]라고 했던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이시영은 김현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상호 보족적인 것이라는 것을 망각"[3]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시는 역사의 현실과, 인간 내면의 풍경이 하나로 일치하는 지점을 향해 가는 문학적 추구를 보여준다. 인간의 실존 자체가 현실과 내면의 무한한 격투와 그 격투의 결과를 정신적으로 분석, 성찰, 융합하는 과정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시영도 그런 과정적 존재로서 자신의 시문학의 세계를 전개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이시영의 문학적 자세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시영의 시가 어떤 전개방식을 통해 구축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작업은, 오늘날 우리 한국시의 미래가 어디를 향해 가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역사의식과 시의 서정적 감성을 융합시키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려는 그는 한국의 근대적 변화의 지점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해체당한 역사와 자산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것은 우리의 실존을 구성하는 현실의 토대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 각성은 단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회상이나 그리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본성에 대한 성찰로 나아간다. 그런 과정에서 그의 시는 보다 깊은 차원의 시적 공명을 발견하려는 노력으로 진화해간다. 이것은 오늘날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으며 지배담론의 억압과 폭력성을 심화

2) 김현, 「글은 왜 쓰는가」, 『상상력과 인간/시인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91, 29쪽.
3) 같은 글, 29쪽.

01□□□_□□□□□□15□ 13. 8. 13. □□ 4:29 Page 7

시키는 현실에 대한 정신적 저항과 윤리적 좌표를 세우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탈근대적 담론을 통해 생명가치의 옹호가 중요해지고 있는 문학사적 전환의 시기에 이러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계급과 자본의 논리에 따라 지배적인 권력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복을 상상하는 글쓰기는 "생명의 본원성"[4]을 복원하는 작업과 직결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시영의 시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신을 구성하는 원체험에 대한 돌아보기이자, 그것을 통해서 인간 실존에 대한 성찰과 역사적 희망을 구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 연구가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는 당연히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이시영 문학의 뼈대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그것이 어떤 문학적 융합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이시영의 시작 전체에서 일종의 전환적 의미를 갖는 시집 『무늬』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의 원초적 체험을 이루는 풍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접근을 통해 우리는 이시영 시의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축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두 개의 축이 서로 교차, 포섭, 융합하면서 그의 시적 상상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2. 역사의식과 서정성의 긴장 그리고 조화

이시영의 『무늬』는 '창비'가 아니라 '문지'에서 나왔다. 그는 이 시집의 첫 머리에 이렇게 적어 놓고 있다.

"18, 9년 전에 여기서 첫 시집을 낼 뻔했다. 물론 김현 선생이 살아계실 때였

4) 박주택, 「생명과 재생의 신화: 몸 시와 여성시를 중심으로」, 김윤식 외 엮음, 『한국현대시사연구』, 시학, 2007.

01□□□_□□□□□□15□ 13. 8. 13. □□ 4:29 Page 8

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철 지난 옷을 입고 낯선 남의 집 문전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집의 환한 불빛도 내 젊은 유랑 시편들의 기숙지였다. (……) 새 시집을 낼 적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나는 나의 삶이 한없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5]

이시영 자신이 『무늬』가 '문지'에서 출간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문학적 성취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시인 자신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첫 시집이란 『만월』을 가리킨다. 그 시집은 그와 '창비'와의 인연의 시작이다. 그리고 1970년대 민중시의 흐름 속에서 구체적 서정성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만들어낸 시기의 작품이었다. 이성부는 『만월』의 발문에서 관념의 숲에 빠지지 않은 "70년대 한국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6]고 평한다. 이성부의 평에 따르자면, 초기부터 이시영은 역사를 관념화시키지 않고 시적 표현양식의 본질을 고수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본다.

당시 문단에서 '창비학교 교무주임'[7]이라고까지 불린 바 있는 이시영은 이 『무늬』의 출간을 계기로 자신의 삶이 한없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는 '창비'와 '문지'라는 한국 현대시를 길러온 두 주요 계보 속에 동시에 존재하게 된 이시영의 기쁨이 표현된 것이자, 그의 시가 지니는 서정성이 문단의 진영을 넘어서서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감격의 고백일 것이다. 그러나 이시영의 자기 평가와 소망은 개인의 주관적인 범주에 머무른 것일 뿐, 문학사적 객관성을 획득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또한 '창비'와 '문지'가 한국 현대문학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잡지를 통해 전자는 역사적 현실과의 문학적 투쟁, 후자는 문학 자체의 호소력을 강조하는, 상호 뚜렷

5) 이시영, 『무늬』, 문학과 지성사, 1994, 自序.
6) 이시영, 『滿月』, 창비, 1976, 156~157쪽.
7) 김영태, 「시인의 초상: 창비학교 교무주임 이시영」, 《현대시학》 1994년 8월호, 18~19쪽.

01□□□_□□□□□□15□ 13. 8. 13. □□ 4:29 Page 9

이 대조되는 문학적 개성이 형성되어왔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시영은 바로 이 차이의 중간지대에서 자신의 시적 정체성이 심화, 확장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사실 대조 내지는 대립적이기까지 한 성격을 지닌 스승이 둘 있다. 서정주와 김수영이다. 어머니도 매우 대조적인 개성을 지닌 두 사람이 있다.[8] 이는 그에게 하나의 세계관이 아닌 두 세계관의 모순과 합일을 내면에서 무의식화 시키는 작업이 시적 원형질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개인사와 시문학 수업의 과정이 그의 시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보다 정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 자신의 자전적 고백을 통해 파악하게 되는 그의 정신세계는, 바로 그 대조적 존재가 자신의 내면에서 긴장과 융합의 과정을 이루면서 만들어진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시영의 시에서, 현실에 대한 역사의식과, 삶에 대한 서정적 감성의 문제가 된다.

이시영에게는 두 어머니가 있다고 했는데 한 어머니는 생모이며 다른 어머니는 그를 길러낸 어머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상반된 모습을 하고 있다. 이시영을 길러낸 어머니는 "19세기적 양반 규수의 절도가 몸에 밴" 여인이고, 생모는 "광주 종방 방적 여공 출신답게 다부지고 정이 많고 씩씩"했다고 한다.[9] 두 어머니와 이시영의 관계는 매우 깊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이시영은 그의 내면에 양반과 민중이 하나로 엉켜 있는 정신적 체질을 만들어 놓았다. 또한 그의 스승인 서정주와 김수영은 서로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시를 끌고 간 이들이다.[10] 그는 두 스승 가운데 누구라고 분명히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한때는 친숙했으나 너무 오래 잊고 있다가 문득 되돌아가고 싶은 시인이 있다"[11] 고 표현한 바 있다. 이 문장 뒤에 기록해놓은 대목을 보면, 이 시인이 서

8) 이시영, 「문학적 자전」, 《시와 시학》 1992년 가을호, 101~103쪽.
9) 같은 글, 101~103쪽.
10) 같은 글, 97~99쪽.
11) 같은 글, 97쪽.

01□□□_□□□□□□15□ 13. 8. 13. □□ 4:29 Page 10

정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이시영은 스승 서정주를 향해서는 "일제 말에 그는 지까다비를 신고…… 아, 그러나 역사는 한 번도 그를 심판하지 않았으며/오히려 그를 해방 남한 유수의 시인으로 칭송했으니/그는 나의 스승"이라며 아파한다.[12] 반면에, 김수영에 대해서는 "그는 참여 시인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가혹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었으며 남에게도, 사회에 대해서도 그것을 요구했다"[13]고 평한다. 김수영의 시에 다소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송기원이 말하는 대로 그는 스승과 화해한다. "스승 곁을 떠난 새끼오리 두 마리가 오랜 세월 먼 강을 따라 흐르다가 굽이치다가 혹은 원수가 되어 거센 여울목을 거슬러 오르다가 깃 빠진 깡패가 다 되어 스승 곁에 돌아오니"라며 송기원은 이시영이 자신보다 먼저 스승 곁에 돌아갔다고 증언한다.[14] 이시영은 서정주에게 고고한 서정을, 김수영에게 민초의 끈질긴 삶이 배어 있는 역사적 현실을 배웠다고 할 수 있다. 이 둘의 문학적 초월을 지향하는 자신을 오랜 세월 속에서 연마한 셈이다. 이런 그의 문학적 편력과, 태생적 복합성은 '창비'와 '문지'의 두 대조적인 문단 진영 사이에서 하나의 미학적 통일성을 내면화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 그의 삶이 이로써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과거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무늬』를 내면서 쓴 감상에도 기록되어 있다. '문지'의 문 앞에서 그는 "철 지난 옷을 입고 낯선 남의 집 문전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 느낌"이라면서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집의 환한 불빛도 내 젊은 유랑 시편들의 기숙지"라고 회상해낸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통해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문 앞에서, 그 문이 사실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닌 자신의 젊은 날의 내면과 깊숙이 맞닿아 있음을 토로한다. 그리고 그것을 '유랑 시편들

12) 임우기, 「초록생명의 세계로 가는 멀고도 힘겨운 길」, 《시와 시학》 1992년 가을호, 111쪽.
13) 이시영, 「문학적 자전」, 98쪽.
14) 송기원, 「내가 만난 이시영」, 《시와 시학》 1992년 가을호, 5~96쪽.

01□□□_□□□□□□15□ 13. 8. 13. □□ 4:29 Page 11

의 기숙지'라고 한 것은 떠돌던 청춘이 마음의 닻을 내려놓고 안식을 취했던 자리라는 의미가 된다. 이는 그가 자신의 기억 속에 사라져 갔던 젊은 시절의 문학적 원체험과 다시 만난 셈이고, 그동안 풀어 놓지 못했던 개인사적 사연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격이다.

시집 『무늬』에는 잃어버린 고향에 돌아가 다시 그곳에서 출발하는 자의 현실 포착이 담겨 있다. 시 「무늬」를 시집의 제목으로 삼은 대목도 주목된다. 두 줄로 된 시 「무늬」의 결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저 잎 새 그늘을 따라 가겠다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다."

"……가겠다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다"는 대목은 그 옛날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는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이 시가 담아내고 있는 기억을 통해 지금, 바로 이 자리라는 시공간으로 돌아와 우리와 마주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만월』에 수록된 시 「정님이」에서 "통금에 쫓기던 내 팔 붙잡다/날랜 발/밤거리로 사라진 여인"처럼 순식간에 놓쳐버린 지난 세월이 아니라, 그 세월 속에서 익혀온 마음을 넉넉한 자세로 현실에 불러들이는 이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의 시집 『무늬』에는 잃어버렸거나 잊고 있었거나 또는 잊고 싶지 않은 시간과 풍경이 호출된다. 그것은 김치수가 한국 소설을 분석하면서 적용시킨 "상처와 치유 그리고 화해"[15]일 수도 있고, 상실했던 시간을 현실에서 재창출해 다시 그 의미를 깊게 새기면서 대면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놓치는 그 모든 순간과 기억들을 시로 포착하려는 문학적 의지로 이어진다. 이시영의 시 제목처럼 결국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무늬"로 남게 하려는 행위인 것이다. 옛날에 있었으나 사라지지

15) 김치수, 『상처와 치유』, 문학과지성사, 2010, 32~44쪽.

01□□□_□□□□□□15□ 13. 8. 13. □□ 4:29 Page 12

않고 다시 우리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그 잃어버렸던 시간의 만남은, 그가 언급한 젊은 날의 유랑의 조각들이 기숙지를 되찾아 공중에 흩어져 해체되지 않으려는 노력과 통하게 된다. 이시영에게 원초적으로 주어졌던 두 대조적인 체험이 만든 세계관은 이렇게 하나의 연결고리를 통해 그의 시문학의 개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3. 『무늬』에 나타난 시 의식의 특징

1) 원초적 체험

오성호는 이시영 시의 1991년 시집 『이슬 맺힌 노래』를 평하면서 "정제된 시형식과 그 속에 농축되어 있는 섬세한 서정"[16]을 주목한다. 그것은 신승엽이 지목했던 "단형 서정시"[17]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정성은 역사적 현실과 유리 또는 격리된 방식의 미학이 아니다. 최원식은 그의 단형 서정시의 뿌리를 이렇게 정리해내고 있다.

> "농업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민족 모순의 자각과 민중의 발견으로 의식의 지평을 외연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이야기시의 문법을 확립한 시인은 한편 내포적 총체성을 지향하는 짧은 노래에 착목하게 된다."[18]

이시영의 자전적 서술은 바로 그의 시를 구성하는 원초적 체험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다.

16) 오성호, 「절제된 서정의 깊이와 힘」, 《창작과 비평》 1991년 가을호, 211쪽.
17) 신승엽, 「참된 단형 서정시의 맛과 가능성」, 《월간 중앙》 1991년 8월호, 564~565쪽.
18) 최원식, 「이야기시와 단시의 긴장」, 《시와 시학》 1992년 가을호, 125~126쪽.

01□□□_□□□□□□15□ 13. 8. 13. □□ 4:29 Page 13

"내가 나서 자란 마을은 구례읍에서 4km 떨어진, 마산면 사도리 하사이다. 사도리(일명 사돌이)란 마을은 (……) 마을 앞 섬진강과 노고단으로부터 발원하여 화엄사골을 콸콸 흘러 내려온 맑은 시내가 만나는 곳에는 과연 드넓은 모래 삼각주가 펼쳐져 있는데(우리는 그곳을 섬뜸이라고 불렀다.) 여름이면 여인네들이 이곳에 모래 움막을 파고 더운 몸을 지졌고, 소년들은 소들을 몰고 나가 삼각주의 대초원에 소고삐를 놓아둔 채 강물 속에 첨벙 뛰어들어 맑은 은어들을 잡았다. 여름 한창이면 구례 안들에서 몰려나온 소들이 수백여 마리나 될 정도였으나 천혜의 대초원은 드넓었고 강변의 세모래는 한없이 푹신푹신했고 은어들 또한 더운 강물의 중심을 피해 강가의 찬물을 찾아 나왔으므로 우리들의 재빠른 손에 고스란히 포획되었다. (……) 햇볕에 그을은 얼굴은 그대로 땅 빛이었다. 농촌 마을이 분해되기 이전의 건강한 대지와 자식들인 셈이다."[19]

정지용의 시대로 표현하자면 그의 고향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즐대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그의 삶의 원초적 터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

"나는 방학 때거나 아니거나 수시로 이 전라선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우리 집을 포함하여 60, 70년대 한국 농촌의 분해과정을 목격했다. 구례구역 낮은 측백나무 울타리 가에서 치마 말기로 눈물을 찍어내며 어린 딸을 작별하던 농촌 아낙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히 잊히지 않는다. 가방을 든 어린 딸은 열차에 올라서도 연신 정거장 마당의 어머니에게 안타까이 손을 흔들었다. 같이 서울 길을 오며 나는 그 소녀의 앞날을 생각해보았다. (……) 1967년 겨울, 하여간 나는 그 죄 많은 전라선을 타고 와 정훈희의 「안개」가 울려 퍼지는 서울역 광장에 이불 보따리를 메고 내렸다."[20]

19) 이시영, 「문학적 자전」, 100쪽.
20) 같은 글, 105~106쪽.

01□□□_□□□□□□15□ 13. 8. 13. □□ 4:29 Page 14

그의 고향은 해체되기 시작했으며 되찾기 어려운,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다. 그는 그 고향을 가차 없이 분해시키는 현실과 마주하면서 역사의 현실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돌이켜보면 70년대와 80년대의 역사는 그에게 이 고향을 해부하고 절단하고 소멸시켜버린 세력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그 싸움을 넘어서서 상실된 것들을 복원해나간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서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에 짓는 집을 통해 시작된다. 시집 『무늬』에 실린 「마음의 고향」 1편에서 5편까지의 대목은 그러한 그의 시적 회귀를 보여준다.

그러면 마당 한구석에서 다가온 어둠이 빤한 눈으로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잠이 쏟아질 것만 같은 내 눈에
갑자기 별빛 한 무더기가 쏟아져 내렸다
환한 밤이었다.

—「마음의 고향 1」 부분

별빛이 쏟아져 어두운 밤이 환해지는 고향은 이제 없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리움을 토해낸다.

내 생에 그런 기쁜 길이 남아 있을까
(……)
간혹 거기까지 잘못 따라온 콩밭 이슬 머금은
작은 청개구리가 영롱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팔짝 튀어 달아나던,
내 생에 그런 기쁜 길을 다시 한번 걸을 수 있을까

—「마음의 고향 4」 부분

그토록 기쁘게 했던 '마음의 고향'이 자신의 삶에 남긴 무늬를 그는 이

01□□□_□□□□□□15□ 13. 8. 13. □□ 4:29 Page 15

렇게 적어놓는다.

> 내 마음의 집은 전라남도 구례군 마사면 사도리 396번지, 동네 앞에서 택시를 내려 마을을 향해 정중앙으로 걸어 올라가면 우물이 나오고 그 우물가의 대문을 곧장 밀면 너른 마당이 시원스런 집. 황토 마당 가득 갓 깬 노란 병아리짱들이 늙은 어미닭을 싸고 혹은 구구거리고 종종 거리던 곳. 저녁이면 늙은 암소가 볏가리에 몸을 숨긴 송아지를 찾아 착한 풍경을 딸랑이는 곳. 그러나 지금은 지상에 없는 집, 나의 집.
>
> —「마음의 고향 5」 부분

서준섭의 말대로 이시영의 「무늬」는 그런 차원에서 "현대인이 잃어버린 근원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직관으로 투시하고 있는 시"이다. 또한 그것을 되찾으려는 "치열한 정신적 고투"가 담겨 있는 시다.[21] 그 방식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울분과 실천적 격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원해서 보여줌으로써 역사성과 서정성의 합일을 꾀한다. 이는 유종호가 말했듯이, 우리 문학에서 되풀이되는 "토착주의 혹은 반(反) 근대주의 지향과 반(反) 토착주의 혹은 근대주의 지향의 대칭"[22]인 듯하면서도 사실은 이를 넘어선 자리에 있는 시선이다. 그것은 단지 대칭의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의 시정신으로 통합시키는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시영의 시는 단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고투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현재의 시간 속에 되살려 마주보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실의 고통을 넘어서는 힘을 지닌다. 이는 그가 자신의 고향풍경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은어들 또한 더운 강물의 중심을 피해 강가의 찬물을 찾아 나왔으므로 우리들의 재빠른 손에 고스란히 포획되었다"고 한 것처럼, 마치

21) 서준섭, 「시의 고향」, 《현대시학》 1994년 7월호, 138쪽.
22) 유종호, 『한국근대시사』, 민음사, 2011년, 33쪽.

01□□□_□□□□□□15□ 13. 8. 13. □□ 4:29 Page 16

잃어버린 시간을 시로 포획하는 듯한 순간의 감격을 전해준다. 시집 『무늬』에서 바로 이 포획의 힘, 상실된 존재와 시간들을 강하게 끌어당겨 시로 포획하는 이시영의 "문학적 인력(引力)"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잃어버린 시간의 문학적 복원

이시영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멸하는 풍경에 대해 특히 안타까워한다. 자신의 고향이 분해당하는 그 원초적 트라우마는 그에게 "내 생에 그런 기쁜 길이 남아 있을까"라는 화두를 놓치지 않게 한다. 그렇다고 사진을 찍어 기록에 남겨 기억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자신의 뇌리와 마음에 붙잡아 두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이미지에 불과할 뿐, 실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시간을 포획하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 다음은 시집 『무늬』에 실린 첫 시 「노래」의 전문이다.

> 깊은 산 골짜기에 막 얼어붙은 폭포의 숨결
> 내년 봄이 올 때까지 거기 있어라
> 다른 입김이 와서 그대를 녹여줄 때까지
>
> —「노래」 전문

겨울의 시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깊은 산골짜기 폭포의 동빙(凍氷)은 여름의 폭포수와는 다르다. 그것은 시간을 정지시키는 자연의 인력과도 같다. 현실에서 그런 정지화면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영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포착하고 싶은 순간의 정지영상과 동영상이 동시에 존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것은 영상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이를테면 기억의 순간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시영은 여기서 그런 소망을 문학화하고 있다.

이 갈망은 이시영의 시간과 풍경, 사람에 대해 일관해서 유지되는 원칙

01□□□_□□□□□□15□ 13. 8. 13. □□ 4:29 Page 17

이다. 이시영이 사람에 대한 일화와 기억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단에 잘 알려진 일인데, 이런 특징은 그의 시와 그의 삶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얼어붙은 폭포의 숨결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봄날의 기운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그걸 녹여 다시 여름의 풍경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싶어 한다. 지나간 시간의 그 행복했던 날들은 이렇게 해서 그에게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갈망을 그는 자연에 대한 섬세한 서정적 관찰과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얼어붙은 폭포를 입김으로 녹여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시영은 이걸 입김으로 녹인다고 말한다. 그것이 그의 노래다. 마치 냉동되어 버린 것 같은 기억들이 그의 노래에서 다시 살아나 원형 그대로 자신을 펼쳐 보이도록 한다.

이런 힘을 가진 시는 자신과 세상을 외롭지 않게 한다. 그의 시 「引力」이 그런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저물녘 벼랑에 선 나무들은 외롭지 않다
능선의 보이지 않는 힘들이 팔들을 뻗어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그들을 강력하게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引力」 전문

시간도 이미 저물고, 서 있는 자리도 벼랑이다. 인생이 시간과 공간, 두 차원에서 모두 밀려나고 있고, 자칫하면 떨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다. 무엇으로 이 인생의 위기를 막아내고 구할 것인가? 시인은 그것을 "능선의 보이지 않는 힘들이 팔들을 뻗"고 있다고 한다. 능선은 언제나 인생과 역사의 고된 고비다. 그 지점까지 오르는 과정은 힘겹고 지칠 수 있다. 그런데 이시영은 바로 그 능선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솟아난다고 증언한다. 고된 역정이 바람이 분다고 사라지는 허무로 이어지는 것을 강하게

01□□□_□□□□□□15□ 13. 8. 13. □□ 4:29 Page 18

거부하고 있다. 이런 몸짓이 그의 시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힘이다. 그런데 그것은 강하고 커다란 제스처를 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지만 강하다. 민중의 끈질긴 고투와 그 삶이 이루어낸 능선의 인력은 그렇게 해서 언제나 인생과 역사의 위기를 지켜낸다.

이 힘은 바람을 등지고 나무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그들을 강력하게 끌어안고 있다고 한다. 능선에 오르자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벼랑에 몰려도 그 바람과 마주하는 모습은 김수영의 「풀」을 넘어서고 있다. 벼랑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고독을 이겨내는 것은 나무 자신의 힘보다는 나무를 잡아주고 있는 인력이다. 이것을 의식할 때 인간은 자연과 역사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

그 인력의 하나가 다름 아닌 시인 김남주다. 그의 영전에 바친 시에 나타나는 역사에 대한 강한 의지는 민중적 치열성과 서정적 풍경이 하나가 되어 표현되고 있다.

벗이여 남주여 그러나 나의 벗을 넘어 민족의 아들이여 민주 전사여
가다 못가면 쉬었다 가자고
그대의 가쁜 숨결에 속삭여댔지만
아픈 다리 이끌며
가로질러 산을 넘고 물 건너 허허로이 저 세상 입구로
먼저 가버린 친구여
남도에 때아닌 폭설이 들판을 덮고
짚북더미 속에서 마늘 싹들은 파릇파릇 시퍼런 눈을 뜨는데
우리는 그대의 죄없이 맑은 눈을 덮어
기어이 고향 마을로 돌려보내야 한단 말인가
(……)
그대가 일생을 걸고 해방시키고자 했던 계급의 마을에

01□□□_□□□□□□15□ 13. 8. 13. □□ 4:29 Page 19

이제 그대의 관을 내리고 우리 목메어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어여 가게 남주
삭풍에 가지 부러지고 귀 씻겨나간 채로
뒤돌아보지 말고 어여 가게 남주
가다가 들판 만나면 거기 개울가에서
낯익은 아이들과 함께 염소 뿔싸움도 시키고
사나운 파도 만나면 어기여차 넘어주며
거기 뱃전에 아기를 업고 서성이는 아낙에게도
눈물 글썽이며 이 세상 안부도 전해주고

오늘은 햇빛 밝고 이 세상에 바람 부는 날
(……)
어여 가게 남주
이 세상 일일랑 이제 남은 자들의 몫
자넨 일생을 제국주의의 억압자들과 사력을 다해 싸웠고
이제 역사 속에 가 아기 손으로 새로 태어나야 할 때
(……)
가로질러 산을 넘고 물 건너 표표히 먼저 간 친구
깨꽃이 환하게 피면 우리에게 다시 오게나
송화 가루 온 산천에 펄펄 날리면
눈 속의 샛붉은 매화처럼 다시 오게나
해방둥이 그대의 삶은 이 땅 반세기의 역사 그 자체
분단의 철조망과 제국의 사슬이 걷힐 날이 반드시 있으리
자본에 의해 자본이 패퇴하는 날이 반드시 있으리
그때 다시 이 세상에 오게나
아픈 다리 바로 딛고 감은 눈 새로 뜨며

01□□□_□□□□□□15□ 13. 8. 13. □□ 4:29 Page 20

그 잔잔한 소년의 미소로.
벗이여 남주여 나의 벗을 넘어 민주주의의 참다운 전사여

—「김남주 시인 영전에」 부분

이 시에서 이시영은 그의 벗 김남주의 영전에서 대단히 격한 어조를 토해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 시를 읽는 이들은 김남주가 능선에 오른 존재이자, 이후 저물녘 벼랑에 선 나무들을 외롭지 않게 할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바람 부는 쪽으로 역사를 강하게 끌어안을 것을 예감하게 된다. 그렇게 능선에 오른 이는 "전사"였고, 그는 단지 싸움에 능한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들판 만나면 거기 개울가에서/낯익은 아이들과 함께 염소 뿔싸움도 시키고/사나운 파도 만나면 어기여차 넘어주며/거기 뱃전에 아기를 업고 서성이는 아낙에게도/눈물 글썽이며 이 세상 안부도 전해주"는 이다. 시인 이시영이 끝없이 복원을 소망하는 세상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 이러한 세상을 기다리는 시인은 「예감」에서 그 뜨거운 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잎새들이 바람에 온몸이 뒤집힐 듯 흔들리는 건
신의 뜨거운 숨결이 거기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일까

나는 오늘도 바람 부는 대지의 한 끝에 서서
나 아닌 나를 뚫고 지나갈 그 어떤 강력한 폭풍을 기다린다

—「예감」 전문

시인은 잎새들의 흔들림이라는 작은 자연의 떨림에서도 신의 뜨거운 숨결을 내다본다. 그리고 그것을 "나 아닌 나를 뚫고 지나갈"이라 말하며, 자칫 능선을 망각하고 벼랑에 서 있는 나무들을 잊을 수 있으며 김남주의 미소를 떠올리지 못할 수 있는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그런

01□□□_□□□□□□15□ 13. 8. 13. □□ 4:29 Page 21

데 그 성찰의 강도는 매우 강력하다. 이는 그가 이 시에서 표현한 대로 '폭풍'으로 뒤집어질 존재의 변혁이다. 바로 이러한 시적 충격이 잎새, 숨결, 대지로 이어지면서 폭풍에 대한 기다림으로 마무리 되는 그의 시는 엄청나게 큰 이야기로 풍경화를 그리는 듯하다. 이것이 그의 시가 지니는 서정성의 혁명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치열함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조개처럼 비밀을 꼭 닫고 산 여자가 있었습니다.
죽어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줄무늬의 진주가 나왔습니다.

일생동안 그녀의 혀가 필사적으로 밀어낸

—「침묵의 무늬」 전문

침묵하고 있다고 발언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깥에서 그렇게 여길 뿐이다. 삶의 무늬 한 줄이 나오기까지, "봄부터 소쩍새가 운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그녀의 혀가 필사적으로 밀어낸" 시간들이 있다. 이 치열한 의식은 생경스럽게 표현되지 않고, 서정성을 가지고 있다. 쏜살같이 유영하는 은어를 재빨리 잡은 손과, 아름다운 줄무늬를 필사적으로 만들어 낸 혀는 언제나 이렇게 이시영 시의 질기고 강력한 문학적 포획력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소란스럽지 않으며, 안으로 깊게 다져가는 인내를 특징으로 한다. 그는 「봄 시장에서」 바로 인내를 읊는다.

달롱개 하얀 실뿌리가 드러내준
저 겨울 들판의 한없는 인내

—「봄 시장에서」 전문

시가 인생과 역사의 사라진 시간과 풍경을 붙잡아 현실의 모습으로 되

01□□□_□□□□□□15□ 13. 8. 13. □□ 4:29 Page 22

살려 내기 위해서는 달롱개 하얀 실뿌리의 '겨울 들판을 지낸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능선을 오른 발걸음이며 침묵 속에서 길러온 힘이다. 시는 바로 이 힘을 지니는 과정임을 이시영은 「시인 나귀」에서 그려내고 있다. 그것은 예전 어느 사라진 풍경처럼,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연으로 표현된다.

그의 생은 자기보다 무거운 역사의 짐을 지고 노을진
산비탈길을 올라야 하는 남루한 등짐장수와 같은 것
그러나 그의 시는 저 깊은 생의 밑바닥을 치며 올라오
는 고요론 저녁 놋종 소리와
푸른 밀물 같은 것

—「시인 나귀」 전문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남루한 등짐장수 같지만, 깊은 생의 밑바닥을 치며 올라오는 내공의 작품으로 시는 존재한다. 김수영이 거대한 뿌리를 대지에 내려 박았다면, 이시영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며 그 힘을 자기 몸으로 체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시에 담겨진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묵직하다. 그리고 그것은 인력과도 같은 밀물이어서 결국 밀어낼 것을 밀어내고 채울 것을 채우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이시영 시 전체에서 보이는 포획력과 인력의 중심에는 불꽃과 사랑이 있다. 먼저 「불꽃의 시절」을 보면,

기차는 가고
저마다의 꿈을 안고 아픈 추억을 안고
자기 생의 전속력으로 기차는 가고
철길은 뒤에 남아 단 한번 뜨거웠던 몸을 시리게 뒤척인다.

—「불꽃의 시절」 전문

01□□□_□□□□□□15□ 13. 8. 13. □□ 4:29 Page 23

결국 기차를 달리게 하는 그 전속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철길이며, 그 철길은 불꽃으로 사는 시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시영은 시 「라일락 향」을 통해 그의 시가 간직하고 있는 그 복원과 포획, 그리고 문학적 인력의 내면에 담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이 세상의 향기란 향기 중 라일락 향기가 그중 진하기로는
> 자정 지난 밤 깊은 골목 끝에서
> 애인을 오래오래 끌어안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
>
> —「라일락 향」 전문

이시영이 인생과 현실을 강렬하게 끌어안는 힘의 정체는 결국 여기에 있다. 불꽃과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 그러면서도 여전히 라일락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삶을 살고 싶은 것. 그것이 그의 시가 민중적 현실에 토대를 두면서 그와 동시에 서정의 세계를 무한히 그의 문학에서 시적 내용이 되게 하는 이유가 된다.

4. 결론

이시영이 가지고 있는 농촌의 원체험은 현대 자본주의와 그 권력이 강제적으로 분해해버린 고향을 결코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진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을 현실에서 생생하게 복원하는 강렬한 힘으로 문학화 된다.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남기는 시인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손에서 꽃과 마을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서정적 환상과 마술의 힘을 시인은 노래하고자 한다. “애인을 오래오래 끌어안고” “라일락 향기”에 취하는 시인은 그 힘으로 또 하나의 우주를 세상에 펼쳐 보이고 싶어 한다.

01□□□_□□□□□□15□ 13. 8. 13. □□ 4:29 Page 24

시인이란, 그가 진정한 시인이라면
우주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언제 나의 입김으로
더운 꽃 한 송이 피워낸 적이 있는가
내가 언제 나의 눈물로
이슬 한 방울 지상에 내린 적 있는가
내가 언제 나의 손길로
광원(曠原)을 거쳐서 내게 달려온 고독한 바람의 잔등을
잠재운 적 있는가 쓰다듬은 적 있는가

—「내가 언제」 전문

이시영은 겨울의 얼어붙은 폭포를 입김으로 녹여내어 다시 흐르게 하고, 봄 들판에 꽃을 피워내며 눈물로 아침이슬을 만들어내는 시인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단지 서정의 문학성이 아닌, '서정의 우주적 생명력을 창출'해 내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종국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시적 목표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우리가 잃어버렸고 복원해야할 본질적 힘은 그저 거대한 자본의 힘과 산업화의 논리에 해체당한 옛 고향의 수준이 아니다. 우주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세상을 지키고 구하는 갈망인 것이다. 이시영의 시는 그런 소망을 독자들의 가슴에 "무늬"로 새겨주고 싶어 한다. '인문(人文)'이 인간의 삶에 기록된 무늬라고 한다면, 이시영은 우리 시대가 겪어온 역사적 격투를 서정적 감성과 우주적 기원으로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바로 그가 『무늬』를 '문지'에서 내면서 "이것을 계기로 나는 나의 삶이 한없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까닭이 명확해진다. 이시영의 시세계는 그런 점에서, 우주적 생명력을 기본 동력으로 하는 세상에 대한 갈망을 구현하고자 하는 문학적 의지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시가 지목하고 있는 목표는 역사

01□□□_□□□□□□15□ 13. 8. 13. □□ 4:29 Page 25

와 서정의 합일을 거쳐,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시영은, 카라타니 고진이 그의 『근대문학의 종언』에서 문학의 역할이 종료되고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자본주의와 국가의 운동이 끝난 것은 아니"[23]라는 명제를 망각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학적 저항과 우리가 복원해야할 가치에 대해 치열한 시적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23) 카라타니 고진, 『근대문학의 종언』, 도서출반b, 2006, 86쪽.

01□□□_□□□□□□15□ 13. 8. 13. □□ 4:29 Page 26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시영, 『무늬』, 문학과지성사, 1994.

2. 단행본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학연사, 2005

김윤식 외 엮음, 『한국현대시사연구』, 시학, 2007

김 현, 『상상력과 인간/시인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91.

김치수, 『상처와 치유』, 문학과지성사, 2010.

이시영, 『滿月』, 창비, 1976.

카라타니 고진, 『근대문학의 종언』, 도서출반b, 2006

3. 일반자료

김영태, 『현대시학』, 1994년 8월호.

서준섭, 「시의 고향」, 『현대시학』, 1994년 7월호.

송기원, 「내가 만난 이시영」, 『시와 시학』, 1992년 가을호.

신승엽, 「참된 단형 서정시의 맛과 가능성」, 『월간 중앙』, 1991년 8월호.

오성호, 「절제된 서정의 깊이와 힘」, 『창작과 비평』, 1991년 가을호.

이시영, 「문학적 자전」, 『시와 시학』, 1992년 가을호.

임우기, 「초록생명의 세계로 가는 멀고도 힘겨운 길」, 『시와 시학』, 1992년 가을호.

최원식, 「이야기시와 단시의 긴장」, 『시와 시학』, 1992년 가을호.

01□□□_□□□□□□15□ 13. 8. 13. □□ 4:29 Page 27

Abstract

A Study on the Poem of Si-Young Lee

—Literary Restoration of the Time Lost

Koo, Hye Sook

This thesis is a study on how to make a unity between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lyric dimension of the poem, on the basis of analysis of the poet Si-Young Lee's works. His poem shows us a model of aesthetic effort to realize the unity as a literary achievement, which demonstrates a sincere reflection on the tension between two contrasting elements mentioned above.

Si-Young Lee tries to express historical realism along with lyricism. This study is significantly concerned with the process of formation of such a literary perspective in his poems. And this thesis attempts to analyze his view on the modernization as well as how he responded to the histor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his works. This will disclose Si-Young Lee's aspiration of literary restoration of the time and values lost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Korean modernization.

This sort of a study is critically relevant to the task that has encountered the Korean literary history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since it has been so difficult to unify the seemingly extreme poles of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lyric expressionism. What characterizes Si-Young Lee's works is that he has actively involved himself in the

01□□□_□□□□□□15□ 13. 8. 13. □□ 4:29 Page 28

restoration of the values precious to us.

This thesis may not be free from criticism. However, I hope this will awaken us to listen to the voice that has been oppressed, and also to specify the historical imagination that could bring a hope for a new future.

주제어: 역사의식(historical consciouness), 서정성(lyricism), 근대화(modernization), 잃어버린 시간 (the time lost), 문학적 복원(literary restoration), 역사적 희망 (historical hope), 현실비판 (critique on the reality), 역사적 상상력 (historical imagination).

논문 접수일 2013. 05. 03.
논문 심사일 2013. 05. 24.
게재 확정일 2013. 06. 14.